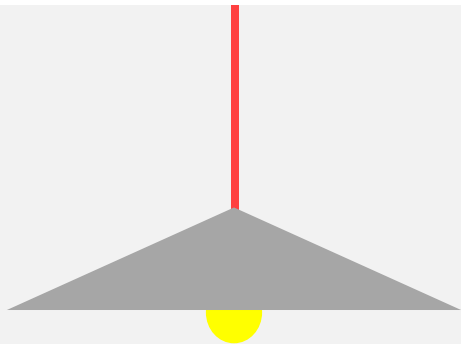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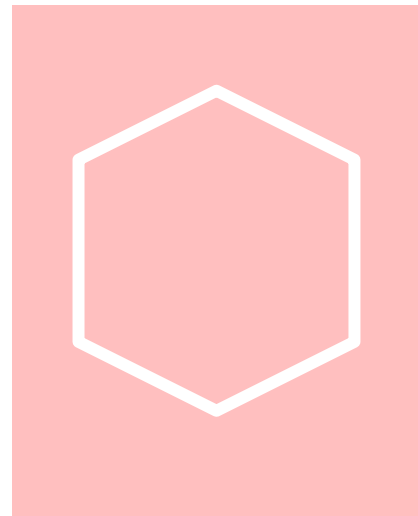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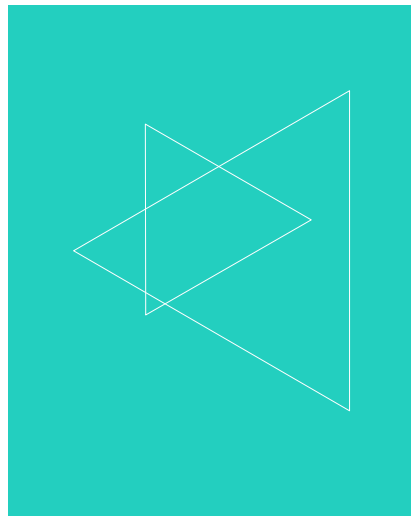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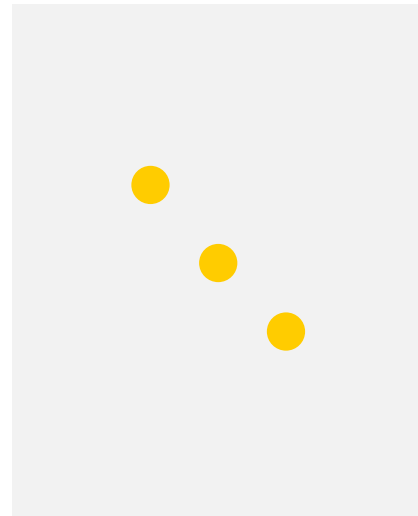




# JJIAO의 11월 보고서

JJIAO Report of Novemb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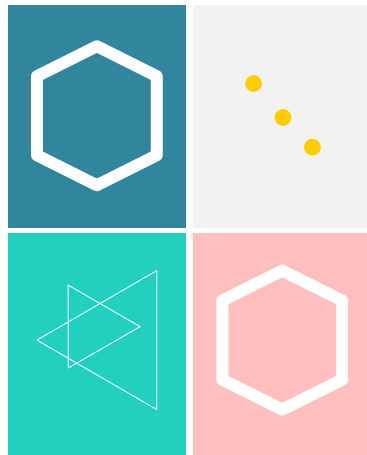
하나 아띠소개

두울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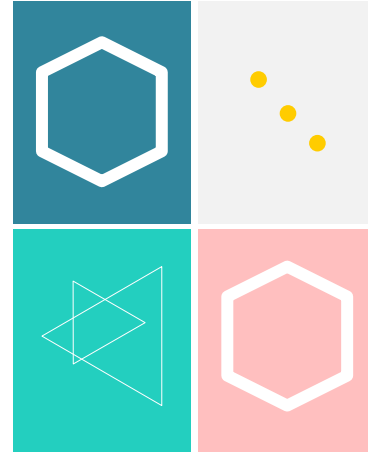
- 붕클 · 번클
- 아띠클럽
- 빈곤퇴치캠페인

세엣 베트남탐방

마지막 개인에세이



## 하나 아띠소개



## 한종교

급식치와와

설혁수의 급식체 특강에 빠져있는

우리들의 말이



## 이성연

노잼성연

언제나 재밌을 것 같아서 말을 하지만  
팀원들은 웃질 않는다.....(인간극장ost)



## 이사라

엄지공주

지금 사진은 이쁘게 잘 나왔지만

비니를 쓰면 엄지공주가 된다



## 허재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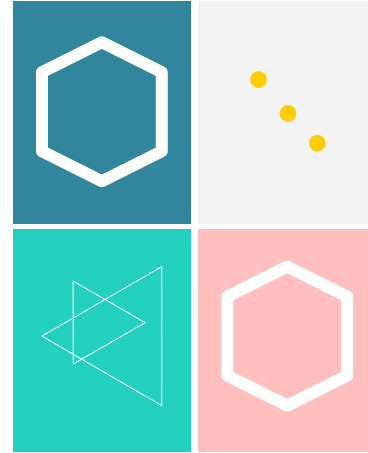
포켓몬

포켓에 넣고 다니고 싶고 넣을 수 있는 (155cm)

매력의 소유자 그래서 포켓몬!



## 두울 프로그램





# ATTI CLUB

응원짜이대학교

매 주 수요일 9:00-10:30 am

국민경제대학교

매 주 금요일 2:00-3:30 pm



# 응웬짜이대학교 "ATTI CLUB"

JIAO의  
11월 보고서

## 1. "POVERTY"



응웬짜이대 친구들과 빈곤과  
빈곤퇴치캠페인에 대해 토론!!



## 응웬짜이대학교 "ATTI CLUB"

JIAO의  
11월 보고서

### 2. "하노이 탐방"



응웬짜이대 하노이탐방은 여성박물관으로!!



# 응웬짜이대학교 "ATTI CLUB"

JIAO의  
11월 보고서

## 2. "하노이 탐방"



# 국민경제대학교 "ATTI CLUB"

JIAO의  
11월 보고서

## 1. "편견"



역할놀이를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2. "신무역게임"



사회 속의 불공정성과 불합리한 무역  
구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 3. "POVERTY"



베트남 학생들과 빈곤에 대해 새롭게  
인식해보았습니다!





## 국민경제대학교 "ATTI CLUB"

JIAO의  
11월 보고서

### 4. "하노이 탐방"



미션을 수행하며 하노이를 탐방하는 아띠클럽!!





## 국민경제대학교 "ATTI CLUB"

JIAO의  
11월 보고서

### 4. "하노이 탐방"



경제대 친구들과 더 친해진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션이 끝난 후 카페에서!!!  
경제대 친구들과!!



## 응원자이대 아띠클럽 피드백

하나, 학생들이 오는 목적이 국제개발과 문화교류와 맞지 않아 주 활동을 문화교류로 변경했다.

두울, 중간에 학생들의 시간표가 바뀌어 학생들과 일정을 맞추기가 어렵다.

세엣, 토론을 할 때 통역이 없다면 진행이 잘 되지 않는다.

## 국민경제대 아띠클럽 피드백

하나, 경제대 학생들과 소통이 잘되어서 토론 때 심도깊은 대화를 할 수 있다.

두울, 경제대 학생들도 우리와 함께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세엣, 우리에게 알려 주고 싶은 주제를 자발적으로 준비해와서 고마웠다.

## 봉클 번클

봉사클럽

매 주 화요일 5:30-8:30 pm

번역클럽

매 주 목요일 5:30-8:30 pm



## 봉사클럽 · 번역클럽

JIAO의  
11월 보고서



봉사클럽 - 이사라, 허재복

번역클럽 - 한종교, 이성연

이번에도 돌아온 봉사클럽 번역클럽!!

매 주 화, 목 5시30분부터 시작!!!





# 빈곤퇴치캠페인

장소 - 국민경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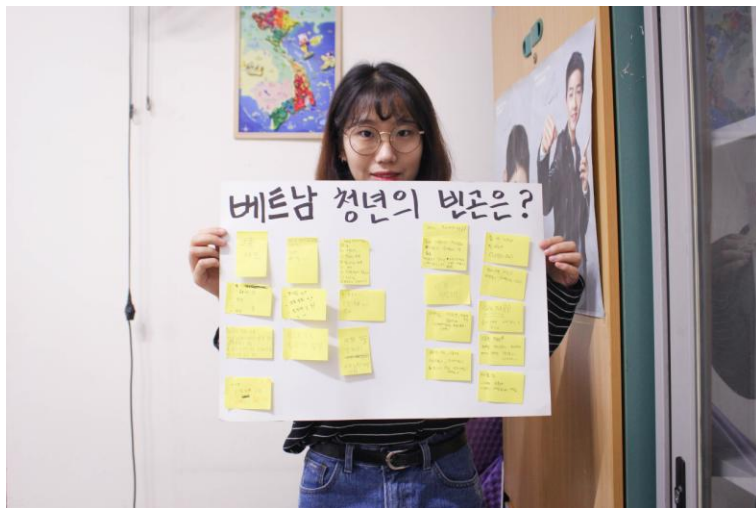
일정 - 11월 28일 8:00 ~ 11:00





## 피아오팀의 빈곤퇴치캠페인변천사

JIAO의  
11월 보고서



봉클 · 번클에게 빈곤에 대해 설명 후 베트남의 빈곤에 대해 듣고 에티켓과 쓰레기문제로 정함

**하지만!** 장소협의에 실패하였고 다시 아띠클럽을 모집한 후 그 대학교에서 아띠클럽친구들과 같이 기획을 해 진행 하자는 의견이 나옴

첫 번째 계획

봉클 · 번클에게 빈곤에 대해 설명 후 베트남의 빈곤에 대해 듣고 나온 주제중 하나를 골라 장소를 정해 캠페인 진행



## 피아오팀의 빈곤퇴치캠페인변천사

**PIAO의**  
11월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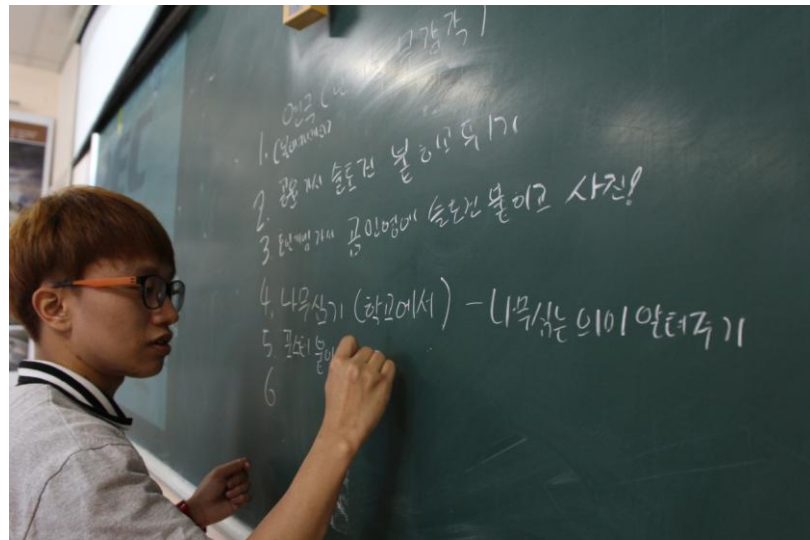


응웬짜이대에서 생각지도 못한 캠페인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서  
좋았고 많은 생각을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캠페인준비를 위해 모여야 했지만 여러 차례 시간약속을  
지키지 않아 빈곤퇴치캠페인 진행이 늦어 질 것 같아 경제대에서  
진행하자고 함

두 번째 계획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아피클럽이 진행되는 두 대학 중  
응웬짜이대에서 진행하기로 함



## 피아오팀의 빈곤퇴치캠페인변천사

**PIAO의**  
11월 보고서



경제대에서 빈곤퇴치캠페인을 준비하면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면서 좋은 아이디어와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 또한 생각지도 못하게 거의 다 도와주겠다고 해서 고맙웠다!

세 번째 계획

빈곤에 대해 고민해 본 후 빈곤퇴치캠페인을 하고 싶은 친구들과 아이디어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 국민경제대 아띠클럽 친구들과 진행한 빈곤퇴치캠페인

**JIAO의**  
**11월 보고서**



캠페인을 도와 준 Uyên과 미니언 재복

경제대에서 빈곤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해 **빈곤의 개념에 관한 캠페인**을 진행하였으며 슬로건을 들고 있는 미니언즈 인형탈로 주의를 끌고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사탕과 껌을 주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형탈과 사진을 찍는 형식으로 진행함!!





# 국민경제대 아띠클럽 친구들과 진행한 빈곤퇴치캠페인

JIAO의  
11월 보고서



경제대 친구들과 아띠들은  
빈곤퇴치캠페인 준비중!!



## 캠페인 스타트!!!!

우리들의 목표는 24명 참여!!

# 국민경제대 아띠클럽 친구들과 진행한 빈곤퇴치캠페인

**JIAO의**  
11월 보고서

열심히 많이 도와주는 경제대 아띠클럽친구들



열심히 참여자를 모으는 미니언



국민경제대 아띠클럽 친구들과 진행한  
빈곤퇴치캠페인

JIAO의  
11월 보고서



점점 채워지는 포스트잇!! 과연 결과는?!

## 국민경제대 아띠클럽 친구들과 진행한 빈곤퇴치캠페인

**JIAO의**  
11월 보고서



우리의 목표보다 4배 정도 많은  
약 100명이 참여!!

## 국민경제대 아띠클럽 친구들과 진행한 빈곤퇴치캠페인

**JIAO의**  
11월 보고서



경제대 친구들의 많은 도움덕분에 빈곤퇴치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Cảm ơn** 경제대아띠클럽!!





## 국민경제대 아띠클럽 친구들과 진행한 빈곤퇴치캠페인 피드백

하나, 생각보다 많은 인원들이 참여했다.

두울, 경제대 학생들이 잘 설명해줘서 베트남 학생들이 빈곤을 인식하는 개념이 확장된 것 같다.

세엣, 예상보다 빈곤의 개념을 아는 사람도 꽤 있었다.

## 국민경제대 아띠클럽 친구들과 진행한 빈곤퇴치캠페인 피드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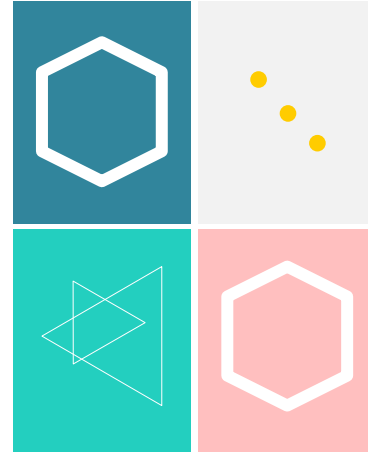
네엣, 나중에 온 스텝에게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다서엣, 학생들을 데리고 와도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스텝이 부족했다.

여서엣, 우리가 베트남어를 잘 몰라 스텝이 어떤 말을 하는지 알아 들을 수가 없었다.



# 세엣 베트남 탐방



베트남 탐방(깃바 · 하롱베이)

JIAO의  
11월 보고서



롱비엔역에서 하이퐁으로 출발!!



## 베트남 탐방(깃바 · 하롱베이)

JIAO의  
11월 보고서



4인 각색의 짜오팀!!

## 베트남 탐방(깃바 · 하롱베이)

JIAO의  
11월 보고서



3시간만에 하이퐁 도착!!

깃바섬 도착!!!!





## 베트남 탐방(갯바 · 하롱베이)

JIAO의  
11월 보고서



해변으로 가는 길에 찰칵!!





## 베트남 탐방(깃바 · 하롱베이)

JIAO의  
11월 보고서



한 명씩

뒤돌아

보기!!!



## 베트남 탐방(깃바 · 하롱베이)

JIAO의  
11월 보고서



사라누나가 제시한 오리포즈!



## 베트남 탐방(깃바 · 하롱베이)

JIAO의  
11월 보고서



하롱베이 투어시작!!



## 베트남 탐방(깃바 · 하롱베이)

JIAO의  
11월 보고서





## 베트남 탐방(깃바 · 하롱베이)

**JIAO의**  
11월 보고서



## 베트남 탐방(깃바 · 하롱베이)

JIAO의  
11월 보고서

까리하고 예쁜사진!!



## 베트남 탐방(깃바 · 하롱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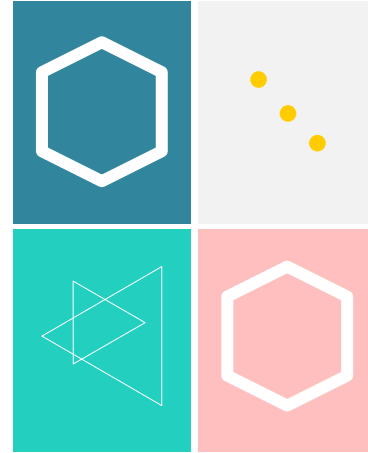
JIAO의  
11월 보고서



하이퐁에서 다시 하노이에 도착!!



## 마지막 개인에세이





라온아띠 생활은 어느덧 중후반을 맞이했다. 익숙한 듯, 익숙하지 않은 중후반의 많은 사람이 그러듯 나도 문득,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내가 여기서 뭐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요새 많이 하게 되는 것 같다. 생각에 생각을 꼬리 물다 내가 여기 왜 온 건지 생각하게 되었다. 내가 라온아띠 지원서에 적은 나의 지원동기는 '여유'를 찾고 싶어서였다. 그럼 과연 나는 여유를 찾았을까? 사실 하노이에서도 만만치 않게 바쁘게 지냈다. 8시 정시 출근. 공휴일이 이제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없는 베트남. 꽤 자주 있는 주말 스케줄. 솔직히 나의 생활을 듣고 여유로웠다고 말하긴 조금 어려울 것 같다. 본래 내가 원했던 모습은 아니지만, 바빴던 만큼 더 많고 다양한 만남이 있었고 바빴던 만큼 더 많은 생각을 하고 배운 것 같다. 그 중 가장 에너지를 많이 쏟은 곳은 아띠클럽이다. 이번 달에는 캠페인과 하노이탐방 등 굉장히 활동적이었다. 아띠클럽을 기획할 때, 간사님과 대학 측에서 우리만 활동을 주도하지 말고 베트남 친구들과 함께 하라고 하셨다. 초반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주로 준비하고 주도했었다. 하지만 주차가 거듭될수록, 같이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하노이 탐방은 내가 속해있는 조에서 준비를 했는데,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약속을 잡고 아이디어를 내주어서 무사히 하노이 탐방을 마칠 수 있었다. 기획하는 과정에서 나는 최대한 우리 조도 같이 탐방에 참여할 수 있는 형식으로 아이디어를 제시했는데, 친구들은 스태프가 필요한 포맷으로 하노이탐방을 짰다. 내가 같이 즐기지 않아도 되겠냐고 걱정스럽게 물어보자 친구들은 우리가 기획하는 프로그램이니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면, 기획하는 것 자체도 충분히 재미있다고 말해주었다. 또 캠페인을 준비할 때, 베트남 친구들의 도움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다.

바쁜 학기 중에도 열심히 해주는 것이 실제로 고맙기도 했고, 영어의 특성상 채팅할 때 'thank you'라는 말을 자주 썼나 보다. 내가 'thank you'라고 하자 한 친구가 나에게 고맙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한다며, 이건 우리의 일이니깐 당연하다는 말을 해주었다. 마지막으로 어떤 친구는 3시간만 잘 수 있는 야간근무 끝나고 바로 캠페인을 하러 왔었다. 이렇게 친구들은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해주었고, 소속감을 느끼고 책임을 같이 져주는 모습에 사실 조금 감동했다. 어떻게 보면 '라운아피'의, '그들'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도 그러지 않는 모습은 내가 어떻게 아띠클럽을 바라보는 지 돌아보게 했고, 이 친구들이 진정한 라운아피(아시아의 좋은 친구들)라는 생각을 했다. 아띠클럽에서 소중한 인연을 많이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한 것처럼 '내가 여기서 뭐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많이 든 것 같다. 특히 엄청나게 바쁠 때 이런 생각을 많이 든 것 같다. 라운아피를 지원할 때 나는 교육봉사가 하고 싶었고 현지인들과 같이 생활하며 그들을 더 이해하고 싶었다. 현실은 베트남 학교 측에 거부로 지금까지 교육봉사를 한번도 나가지 못했고 내가 살고 있는 곳은 베트남에서 한국사람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었다. 게다가 우리 센터에서 또한 모든 의사소통이 한글로 이뤄지고 있고, 분위기도 한국적이다. 그래도 팀원들과 이런 고민들을 공유하고 나서, 어떤 팀원은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또 어떤 팀원은 나의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생각하는 모습을 보며 위안을 얻을 수 있었다. 또 같은 고민을 하는 팀원과 이야기를 나누며 안산에서 많이 들었고 라운아피에서 추구하는 '지역'이라는 단어를 이제까지 한번도 고민해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사실 나는 '지역'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베트남에 왔었다. 근데 때마침 읽던 책이 전혀 사회복지나 국제개발에 대한 것이 아니었는데도 지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작가는 현대 사람들은 권리를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사실 '권리는 어딘가에서 주어지는 것이고, 그 어딘가는 바로 공동체다.

그 대신에 우리 모두는 공동체에 대한 의무가 있다' 라고 적어놓았다. 이 문장으로 읽으면서 그 동안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던 '지역'이라는 개념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팀원들과 고민하고 있다.

중간보고, 11월보고서 때문에도 그랬지만 신기하게 3.6.9 법칙대로 베트남에 온 지 3달이 되니 그 동안의 활동과 나의 태도를 많이 돌아본 시간을 가진 것 같다. 이 기간 동안 나는 팀원들 그리고 간사님들과 지지고 묶으면서 나와 나의 모난 부분을 많이 알 수 있었다. 아동결연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나의 생각이 바뀔 수 있었다. 또 이제는 예전보다 조금 더 자신 있게 나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법을 배우고,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친해지는 경험도 쌓을 수 있었다. 3달간 배웠던 것과 아쉬웠던 점을 기억하며 앞으로 남은 2달을 보내고 싶다.

라운아피 활동이 중반을 지났다. 지금 생각해보면 3달 중 11월이 가장 바쁘고, 시간이 가장 빨리 갔던 시기였던 것 같다. 11월 중반부터 비자트립, 빈곤퇴치캠페인, 중간보고회 준비 그리고 우리가 항상 해오던 번역클럽, 봉사클럽, 아피 클럽 활동까지 눈 코 뜰 새 없이 11월이 가버렸다. 이렇게 빨리 지나간 11월은 특히 고민이 많았던 시기였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반복되는 활동에 흥미를 잃어가고 있었고, 치열하게 고민하기 보다는 그저 현실에 안주하려고 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저 시간을 때우는 식으로 보냈던 것 같다. 그리고 다른 팀들의 보고서를 보면서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우리가 하고있는 활동은 봉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런 게 바로 봉사지' 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이러한 복합적인 고민으로 인해 11월은 굉장히 재미없게 보냈던 것 같다. 그런데 개인에세이를 쓰면서 우리 팀의 11월 보고서를 다시 읽어보니 우리가 처음으로 하노이를 벗어나서 여행을 갔던 것,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빈곤퇴치캠페인을 진행한 것을 잊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안에서 우리끼리 한 많은 회의와 그리고 베트남 친구들과 함께한 회의까지 정말 많은 회의를 거치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의견 충돌을 조율해가는 법을 배웠고, 베트남 친구들의 다양한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다. 결국 나의 고민이었던 반복되는 활동 중 하나인 사람들과의 회의에서 많은 것을 배운 것을 보면 일상의 소중함과 중요함을 다시 느낀다. 이제 정말 라운아피 활동이 2달이 남았다. 어떻게 생각 하느냐에 따라 길면 길수도 있고, 짧으면 짧을 수 있는 2달을 후회없이 보냈으면 좋겠다. 하지만 후회없이 보내기 위해서 욕심을 내기 보다는 앞서 말했듯이 매일 살아가는 일상속에서 많은 의미를 찾으려 노력하고,



팀원들과 베트남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많이 쌓고, 나에 대해 고민하는 시기였으면 좋겠다. 지금 이 에세이를 쓰고 있는 12월에 아띠클럽과 번역클럽, 봉사클럽이 끝난다는 사실이 너무 아쉽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은 필연적인 것이지만 그들에게 정말 많은 좋은 자극을 받았기에 더욱 아쉬움이 남는 것 같다. 그래서 그들과 남은 활동을 잘 마무리해서 그들에게 우리와 함께한 시간들이 좋은 추억으로 남겨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하노이의 쌀쌀해진 날씨와 12월이라는 연말의 특수성으로 인해 자꾸 라온아띠 활동도 마무리 되는 느낌이다. 하지만 양간사님이 중간보고 때 얘기 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졸업하는 것은 아니기에 마음을 다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12월부터는 드디어 초등학교에 교육봉사를 시작한다.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기에 설렘과 걱정이 공존한다. 9월 한달을 온전히 교육봉사를 위해 할애하고 그 이후부터는 일정이 잡히지 않아 등한시켰기에 설렘보다는 솔직히 걱정이 큰 것 같다. 하지만 12월부터 시작하는 교육봉사가 나에게 좋은 자극이 될 거라는 조금의 확신은 있는 것 같다. 그 확신이 틀렸는지, 맞았는지는 12월 에세이에서 확인 할 수 있겠지만.... 마지막으로 12월에 이루어지는 새로운 활동과 기존에 해왔던 활동들을 잘 마무리해서 12월 한 달 동안에도 많은 것을 느끼며 배웠으면 하는 바람이다.

11월 달에는 유독 기획하고 활동하는 일들이 많았다. 응웬짜이대 아띠클럽 조원과 내가 주체가 되어 하노이 탐방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활동하였고, 경제대 아띠클럽에서 짜아오팀이 신무역 게임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활동을 하였다. 유독 이번 달에 주체적으로 기획하고 활동하는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 그만큼 책임감과 부담감이 더해졌다. 즐기면서 하고자 했던 나의 마음들이 도리어 잘하려는 욕심으로 번져서 같이 활동하는 조원들에게 미안했다. 조원과 상의해서 같이 활동하는 건데 나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맞추려다 보니 조금만 계획이 틀어져도 여유 있게 흘러 보내질 못했던 거 같다. '아띠클럽을 할 때 왜 조원들과 같이 기획하고 진행하는 활동을 넣었는지 다시 생각했었더라면 더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을텐데...' 아쉬움이 남았다.

빈곤퇴치캠페인을 할 때에는 활동의 의미를 되새기며 학생들의 의견과 우리들의 의견을 모아 기획하고 진행하였다. 우리끼리 생각했었을 때보다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 더 색다르게 활동 할 수 있었다.

아띠클럽 친구들과 경제대학생들에게 빈곤이라는 의미가 단지 경제적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미도 있다는 인식변화에 대한 캠페인을 하게 되어서 좋았고, 나를 비롯해 캠페인을 처음 진행해 본 아띠 친구들에게 캠페인이 어떠한 활동인지, 캠페인을 진행할 때 사람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다가가야 관심을 끌 수 있는지 배우게 되는 시간이었다. 그 동안 봉사클럽, 아띠클럽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보다는 더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서, '내가 먼저 도와줘야지'라는 고정관념을 깰 수 있었다. 국내훈련 받을 때 간사님이 하셨던 말이 "봉사하러 갔으니까 먼저 도와줘야지"

라는 편견을 버리라고 하셨었다. 그걸 들었을 때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나도 모르게 마음 한 구석엔 그러한 편견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현지에 와서 생활하다 보니 간사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 할 수 있었다. 생각의 틀이 깨지고 난 후 그들과 더 가깝게 지낼 수 있었고, 내가 하고 있는 활동들에 대해 좀 더 깊게 고민할 수 있었다. 베트남어가 서툴어도 그들의 언어로 다가가고, 영어로 대화가 어렵다 하여도 서로가 대충 알아듣고 이해하는 게 신기하면서도 또 하나의 소통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무엇보다 베트남 오기 전까지 현실에 부딪혀 이리재고 저리 잤던 나의 진로가 베트남에 와서 라온아띠 활동을 통해 조금은 방향성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이 제일 뜻 깊었다. 아직도 스스로 해소되지 못한 고민이 있다면 내가 하는 여러 활동들이 진짜 누구를 위해 하는 건지, 나의 발전을 위한 건지, 남을 위한 건지, 지금 나의 동기와 목적에 맞게 가고 있는 건지 혹은 누군가에게 보여주려는 나의 욕심으로 비뚤어진 건지 남은 두 달 동안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될 것 같다. 이제 교육활동도 시작하게 되면 앞으로 남은 두 달간 지금 보다 더 다양하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 질 텐데, 어떤 일에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의미 부여할 수 있는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RaonAtti

개인에세이뉴스

## 허재복, “하이퐁 갔다오는 기차 안에서 많은 생각들어” 하이퐁특집에세이 1편... 헤어짐



본문듣기 | 설정

기사입력

2017-11-30 12:59

기사원문



2



(하노이=아띠뉴스) 하이퐁에서 하노이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는 기차라 그런지 많은 생각이 들었다. 제일 많이 생각이 든 것은 헤어짐에 대한 걱정과 관계에 대한 것이었다.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같이 보내고 또 이때까지 같이 보냈던 시간들이 이제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추억이 되었다는 점이다. 아직 나의 라온아띠 활동은 반이나 남았지만 벌써부터 헤어짐에 대한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그렇다. 나는 헤어짐이 싫다, 헤어짐의 때의 그런 슬픔이 싫다. 다시 만날 것을 알지만 이제는 많이 못 본다는 것에 대한 슬픔도 있다. 이러한 슬픔에도 조금 무감각해졌으면 좋겠다. 나는 그래서 '이젠 안녕' 이라는 노래가 제일 슬픈 것 같다. 노래가사를 보면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다시 만나기위한 약속일거야 함께했던 시간은 이제 추억으로 남기고 서로 가야할 길 찾아서 떠나야해요' 라는 가사이다. 우리도 언젠간 헤어짐이 있을 것이고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또한 이제 함께했던 시간이 다 추억이 되었고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 되어 버린 다는 점이 너무 슬픈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오는 기차 안에서 이때까지 했던 나의 행동들을 되돌아봤는데 너무 나만 생각 한 것 같기도하다. 말을 하기 싫을 때는 말을 안하기도 하고 말투도 많이 안 좋게 하고 그런 점이 나중에 헤어짐의 순간이 오면 후회할 것인데도 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라온아띠 활동 중반에 깨달았다는 것이 후회가 되기도 하고 좀 더 빨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또한 내가 들었을 때 슬펐던 말은 정확히는 기억이 안나지만 '잠시 같이 걷는 시간이다.' 이런 말이 포함이 되어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들을 더욱 소중히 여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는 후회하지 않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생각이 들다보니 조금 마음이 우울해지기도 했다. 근데 타이밍이 다 발라드 곡만 계속 나와 내가 계속 넘기기도 하였다. 또 하나 생각난 드라마에 나레이션이 있었다. 이것도 잘 기억이 안나지만..... 딱 생각나는 한마디가 있다. '나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다 조금씩 배려해주고 노력하고 있다.' 라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생각이 부족했던 것 같다 좀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지내야겠고 또 이러한 시간을 그러한 것을 생각하는데 허비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좋아요  
770



훈훈해요  
122



슬퍼요  
4



화나요



후속기사 원해요  
9

이 기사를 모바일 메인으로 추천 236





RaonAtti

개인에세이뉴스

## 허재복, “하이퐁 갔다오는 기차 안에서 많은 생각들어” 하이퐁특집에세이 2편... 영어



본문듣기



설정

기사입력

2017-11-30 12:59

기사원문



2



(하노이=아띠뉴스) 한가지 더 생각이 들었던 것은 마지막이었다. 마지막에 하노이가 밖에서 보일 때 나는 그냥 맞는지도 모르고 베트남어로 멈춘 기차역이름을 물어봤었다. 근데 못알아들으셔서 영어단어 하나쓰고 베트남어로 물어봤는데 앞에 계신 아저씨가 나에게 영어로 대답을 해주셨다. 그렇게 아저씨와 간단한 대화를 나누고 몇가지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하노이역까지 왔다. 내리고 나서 했던 말이 종교형이 ‘영어를 좀 하는데?’라고 했었다. 나는 근데 영어를 못한다. 또한 그렇게 막 맞는 문장인지도 모르겠었고 몇가지 단어로만 말하고 그랬었다. 하지만 그 분은 알아들으시고 또 말을 해주시고 또 내가 못알아듣는 문장이 있으면 최대한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해주셨다. 이때 느낀 점은 내가 그냥 ‘아 나는 영어를 못해’라고 단정을 지으며 영어로는 말 할때에는 성언이누나나 종교형에게 말해달라고 하고 최대한 내가 말해보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다. 이때 또 생각이 든 점은 ‘베트남어는 2개월에서 3개월정도 배우고 지금 이렇게 어떻게든 말이 안되는 문장이든 신경을

안쓰고 말을 하지만 왜 영어는 내가 9년을 배우고 말을 못하고 두려워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분명 내가 아는 영어단어가 베트남어 보다 많은데 나는 왜 두려워하고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는 베트남어처럼 막 써볼려고 한다. 아띠클럽에서는 영어로 소통을 하니깐 최대한 내가 해 보려고 하고 진짜 중요한 내용이고 잘못전달할 시 안좋은 것은 부탁을 하겠는데 일상 대화는 최대한 영어로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베트남어는 더욱 더 열심히 무턱대고 써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좋아요  
770



훈훈해요  
122



슬퍼요



화나요



후속기사 원해요  
9

이 기사를 모바일 메인으로 추천 236





개인에세이뉴스

## 허재복, 진짜 개인에세이는 지금부터



본문듣기



설정

기사입력 2017-11-30 12:59

기사원문



2



(하노이=아띠뉴스) 11월보고서를 쓰게 되었다는 사실에 놀랍기도하다. 이제 곧 있으면 중간평가라는 사실에 놀라기도 한다. 하이퐁은 11월 초반에 갔던 것인데 벌써 11월 보고서를 쓴다.... 시간이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내가 이 보고서를 쓰고 있는 날은 12월 4일이다. 남은 라온아띠의 날을 생각해봤는데 벌써 약 무도를 8번 보면 라온아띠 활동이 끝난다. 그래서 지금 앞에 보고서에 썼던 것을 다시 되돌아보려고 한다. 나는 아직 버스를 타보지 못했고 3개월동안 처음 대중교통을 이용한 것은 비자트립때 태국이다. 그렇게 다짐만 해두고 지키지를 못했다. 또한 카페를 간다면 '일회용컵 말고 내 텀블러를 가져가자!' 라고 다짐을 해두고 아직 지키지는 못했다. 나의 라온아띠 활동이 2개월이 남았지만 아직 지키지못한 것이 많다. 또한 베트남어를 아직 잘못하다는 것이 아쉽기도 하다. 내가 번역을 해보려 열심히 사전을 찾아가며 작문을 해봤지만 고쳐야될 부분이 너무 많았다. 또한 내가 너무 급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다. 내가 먼저 급하고 내가 먼저 업무의 기한이 있다면 미리

끝내두고 싶은 마음이 커서 먼저 해두고 조금 그런 것에 대해 답답함을 많이 느끼기도 한다. '뒤에도 우리가 할 일이 많은데 이렇게 느리게 해도 될까?' '지금 안하면 나중에 너무 급하게 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 나 혼자 너무 빨리 하려고 했던 것도 같고 조금 내가 너무 성격이 급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한다. 12월부터는 좀 느리게 해보는 것을 해봐야겠다. 또한 위에 에세이는 하이퐁을 갔다오자마자 그 감성에 쓴 글이다. 하이퐁에서 오는 기차안에서는 많았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다. 또한 아직 내가 기분이 나쁜일이 있으면 말을 안하는 것도 있다. 아직 이런 것은 고쳐지지 못했는 것 같다. 또한 나는 마음 상하는 일이 있는 후 그것을 잊는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었던 것 같다. 아직 근데 잘 어떻게 대처를 해야될지 모르겠다. 그래도 항상 그런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잊게되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 이번 달은 반성하게 되는 달인 것 같다. 또한 중간평가 후 생각이 바뀌었고 양간사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말 해주시기도 하고 또한 생각 할 것을 던져주시기도 해 많이 생각이 바뀌었고 다시 나를 되돌아보게 되었다!! 그리고 앞에 했던 고민들이 많이 해결이 되어서 지금은 좋다!! 이것을 12월에 써야하지만 미리 쓴다!!



좋아요  
770



훈훈해요  
122



슬퍼요



화나요



후속기사 원해요  
9

 이 기사를 모바일 메인으로 추천 236



#이번 달엔 #뉴스형식 #감정기복이 #큰 #11월  
#12월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Xin Cảm ơn**

